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16호 / 03월 11일

국가발전계획위 주임 全人大 보고 :2002년 국민경제 운용실적과 2003년 발전계획

1. 개요

□ 쩡페이옌(曾培炎)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(의회: 이하 全人大) 제1차 회의에서 작년도 경제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보고하였음.

- 쩡주임은 작년도 중국경제가 8%의 높은 성장과 함께 어느 정도의 질적 개선도 실현했으나 여전히 유효수요 부족, 실업난 가중, 국유기업 개혁 부진, 경제질서의 혼란 및 사회신용기반 낙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함.
- 또한 금년도 중국 경제는 7%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, 경제정책의 중점을 ▲농촌 구조조정과 농민소득 증대, ▲확대 재정정책과 안정 금융정책, ▲고용창출과 사회보장제도 정비, ▲산업구조조정 및 고도화, ▲서부대개발, ▲시장화개혁 가속화 및 시장질서 정비, ▲대외개방 확대, ▲소비수준 제고, ▲재정 수입 증대와 재정지출구조 조정, ▲과학기술 개선과 교육 확대 등에 둘 것이라고 밝힘.

2. 2002년 경제운용실적 평가

□ 2002년 중국경제는 내수확대정책 등에 힘입어 8%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음.

- 확대 재정정책과 안정 통화정책을 실행하였으며, 국채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민간투자도 적극 활용됨.
- 사회 고정자산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16.1% 증가한 4조 3,202억 원을 기록함.
 - o 장기건설국채 1,500억 원을 발행하여 2% 포인트의 성장건인 효과를 거둠.
- 도농주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주민소득의 증대, 소비정책의 정비, 소비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.
 - o 소비총액은 8.8% 증가한 4조 911억 원에 달함. 특히 주택, 관광, 교육, 자동차 등의 소비분이 형성됨.

□ 산업구조조정으로 경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개선도 실현함.

- 식량생산은 농촌 구조조정과 품종개량 등에 힘입어 1% 증가함.
- 수리시설, 교통, 통신, 에너지, 환경보호 등 사회간접시설이 크게 확대됨.
- 하이테크 산업의 공업생산액이 23%나 증가함.
- 전신, 물류, 컨설팅, 관광, 지역취업 등 각종 서비스산업이 크게 성장함.
- 규모 이상 기업의 이윤증가액은 20.6% 증가한 5,620억 원에 달함.

□ 서부대개발이 내실 있게 추진됨에 따라 중서부지역의 성장이 빨라짐.

- 서부가스의 동부수송, 타림강 종합개발 등 핵심공사가 착공되었으며, 서부전력의 동부수송 역시 원만하게 진행됨.
- 농촌 송전시설, 도로 확장, 라디오와 TV수신망, 수리시설 등 공사가 급진전됨.
- 폐경지 녹화사업 등 생태환경 보존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됨.

□ 경제체제개혁이 심화되어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 여건이 조성됨.

- 중대형국유기업의 회사제 개혁이 계속 추진됨.
- <중소기업법>의 제정으로 중소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.
- 개체, 사영 등 비공유경제의 성장이 빨라짐.
- 전신, 민간항공, 전력 등 관리체제가 크게 개선됨.
- 가격개혁을 심화하고 정부가가격결정 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하수 및 생활쓰레기처리비 징수, 농촌지역 비용 공시제도 등을 실시함.
- 위조 식품, 약품, 의료기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으며, 문화, 관광, 건축, 시장 등에 대한 정비를 강화함.

□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는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, 대외개방이 크게 확대됨.

- 중국은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범규 정비, 관세율 인하,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폐지, 외국인투자 영역의 확대,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련 제도를 정비함.
- 대외무역액은 21.8% 증가한 6,208억 달러를 기록함.
 - 무역구조가 개선되어 기계, 전기제품,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이 대폭 증가함.
 - 또한 국내수요가 큰 핵심설비, 고급상품, 원자재 등의 수입이 증가함.
- 외국인투자 실행액은 12.5% 증가한 527억 달러에 달함.
 - 외국인투자 중 대형자본, 기술집약적 항목의 투자가 증가함.
- 국내자본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지역간, 양자·다자간 경제협력이 심화됨.

□ 정부의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적자는 다소 확대되고 있음.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됨

- 재정수입은 15.4% 증가한 1조 9,914억 元, 재정지출은 16.4% 증가한 2조 2,012억 元을 기록, 3,0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.
- 금융리스크가 낮아지고 금융의 성장 및 구조조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짐.
- 2002년말 현재 금융기관 대출액은 15.4% 증가하였으며, 부실대출비율은 4.5% 포인트 하락함. 외환보유고는 2,864억 달러에 달함.

□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교육의 기능이 제고됨.

- 기초기술과 고급기술 연구가 크게 진전됨.
- o 위성 神州 3호, 4호를 발사하고 초대형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, 기능계능 등 기술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됨.
-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강화됨.
- 기초교육이 부단히 강화되고 새로운 농촌 의무교육체제가 형성되어 빈곤지구의 의무교육이 크게 개선됨.
- o 또한 학교시설의 확장 및 보수를 추진, 321만 명의 대학생과 20만 3,000명의 대학원생을 모집함.
- 사회, 문화 방면의 제반 사업이 발전하였으며, 주민 생활수준이 향상됨.
- o 문화, 보건위생, 체육, 출판 등의 사업이 크게 발전하여, 핵심 문화시설, 농촌 보건위생시설, 중의병원, 전문과 병원 등이 증가함.
- o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이 각각 13.4%와 4.8% 증가함.
- o 작년말 현재 도시 공식실업률은 4%를 기록함.
- 환경보호, 자원의 개발 및 이용방식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이 제고됨.
- o 오염이 심한 기업을 파산시키거나 생산을 중지시킴. 淮河 등 호수의 환경정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, 일부 도시와 공장, 광산 지구의 이산화황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산성비 악화 추세를 억제함.
- o 환경처리시설이 강화되어 도시의 오수처리율이 40.3%에 달하며, 남부 수자원의 북부 수송사업이 착공됨.
- o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6.46‰를 기록함.

□ 한편, 쑹주임은 중국경제의 당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함.

- 첫째, 유효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공급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함.
- o 농민들과 일부 도시주민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아 소비증가에 제약요인이 됨.
- o 집체, 개체, 사영경제의 투자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함.
- 둘째, 신규취업 및 재취업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.

- 도시의 취업인력과 농촌의 유희노동력은 많은 반면 신규 일자리는 부족함.
- 셋째,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.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.
- 넷째, 시장경제질서가 혼란하고 사회신용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사고가 많이 발생함.

<표 1>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2002년 실적과 2003년 예측치

항 목	2002년 실적	2003년 예측치
GDP 증가율	8%	7% 내외
고정자산투자 증가율	16.1%	12%
소매물가 상승률(상반기)	-0.8%	-
소비자물가 상승률	-0.8%	1%
수출입 증가율	21.8%	7%
재정수입	1조 9,914억 원	2조 501억 원
재정지출	2조 2,012억 원	2조 3,699억 원
재정수지	- 3,098억 원	- 3,198억 원
총통화(M ₂) 증가율	16.8%	16% 내외
통화(M ₁) 증가율	16.8%	16% 내외
도시지역 등록 실업률	4.0%	4.5% 내외
도시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	13.4%	6%
농민 순수입 증가율	4.8%	4%
인구 자연증가율	6.64‰	7.5‰ 이내

자료: 2002년 중국통계공보 및 국가발전계획위 주임의 금년 전년대 보고

3. 금년도 국민경제 발전목표

□ 쟁페이엔 주임은 2003년에도 내수확대 정책을 유지하며, 확대 재정정책과 안정 통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.

- 쟁주임이 밝힌 금년도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목표치는 다음과 같음.
- 경제성장률 약 7%
- 신규취업자수 800만 명이상, 공식적인 도시실업률 4.5% 이내
- 소비자물가 상승률 1%
- 수출입총액 증가율 7%

□ 쟁페이옌 주임은 금년도 거시경제지표 목표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함.

- 농업과 농촌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의 1인당 순소득을 4% 정도 제고함.
- o 농업, 임업, 수리 등 대형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, 절수형관개시설, 식수공급, 농촌도로 건설, 늪지대 가스채취, 농촌수력발전 등 소형 기초시설을 확충함.
- o 빈곤구제사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하며, 빈곤지구의 도로, 식수, 전기 등 문제를 해결함.
- o 향진기업의 구조조정과 체제혁신, 기술혁신 등을 추진함.

- 국채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을 추진함.
- o 금년도 1,400억 元의 장기건설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, 고정자산투자는 12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o 국채투자는 농촌의 생산 및 생활여건 개선, 산업구조조정, 중서부지구 투자, 과학기술 교육과 생태환경 건설 등에 집중시킴.
- o 국채의 재할인율을 인상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, 민간자본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며 투자 및 용자, 세수, 토지사용 등에서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함.

- 실업대책으로서 고용창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함.
- o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함. 특히 개체경제와 사영경제,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을 늘림.
- o 인력시장 육성, 직업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며, 특히 정리해고자(下崗)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조세감면, 소액담보저리융자, 사회보험보조금 등 조치를 취함.

- 신형공업화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함.
- o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고 하이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함.
- o 제조업은 설비의 국산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, 기간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함. 자동차, 철강, 건축자재 등 업종에 대한 조정을 통해 과잉경쟁을 방지함.

- 환경오염 기업을 도태시키고, 현대적인 서비스업과 체인경영, 유통업 등을 적극 육성함.
- 서부대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.
- 기초시설과 생태환경 건설을 위해 청해-서장철도, 서부가스의 동부수송, 서부 전력의 동부수송, 간선도로, 서장 및 신장지역의 방송시청률 확대, 생태환경 보호 등을 위한 건설공사 추진
-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확대, 황무지 녹지화, 초원복원, 농촌의 식수난과 에너지부족 해소, 생태이민 정착 등을 추진
- 서부지구의 개혁개방 확대, 과학기술과 교육발전 지원, 비교우위산업의 육성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부개발자금 확보 등
- 시장화개혁을 촉진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정비함.
- 중대형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편을 가속화 하고, 조건을 구비한 기업의 해외시장 지원
- 기술 및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, 군수산업 등 경영성파가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함. 전신, 민간항공, 전력 등 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적극 추진함.
- 국유자산관리체제를 개혁하며, 가격결정시 청문회제도를 통해 가격형성메커니즘을 정비함.
- 위조상품, 밀수,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,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종합체계를 구축함.
-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국내외 시장과 자원의 이용가치를 제고함.
- 대외무역권한 승인의 확대,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정책을 정비하고, 반덤핑 대책을 강구함.
- 투자환경 개선, 서비스업 개방의 단계적 추진, 선진기술과 관리기법 도입 및 전문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부문의 외자도입 확대
-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장려, 다양한 형태의 다국적 경영 장려
- 농촌 소비시장 육성을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주민생활수준을 제고함.

- 소비를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유망 품목 발굴, 지역사회 봉사, 여가생활, 체육과 위생 등 새로운 소비분야를 집중 육성
 - 저가주택 공급, 소비대출 확대, 관광 기초시설 확대, 저소득층의 소득 제고 등 소비촉진책 마련
-
-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재정지출을 조정하며, 금융의 경제성장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함. 금년도 재정수입은 2조 501억 원, 재정지출은 2조 3,699억 원으로 재정적자를 3,198억 원 이내로 통제함.
 - 세금징수 관리를 강화하고,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하여 임금의 적시 지급, 농촌의 의무교육과 보건위생 개선, 중서부지역과 빈곤지역에 대한 이전지불 확대 등을 추진함.
 -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함. 국유은행의 대출구조 개선, 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등을 통해 금융리스크를 낮추는 데 주력함.
-
-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 추진하며, 사회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함.
 - 기초기술, 하이테크 기술연구 강화, 지적재산권 보유수준 제고, 고급인재 양성, 과학기술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함.
 - 빈곤지역의 9년제 의무교육 보급, 청장년 문명퇴치, 학교시설 개선, 성인교육과 직업교육 강화. 금년도 대학생은 335만 명, 대학원생은 27만 명 정도로 예상됨.
 -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0.75% 이내로 통제함.
 - 문화, 보건위생, 체육, 출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, 올림픽과 세계박람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함.(***)